



전북대도약을 향한 시군 방문으로 28일 임실군을 찾은 송하진 도지사는 심민 군수와 함께 6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수상에 빛나는 임실치즈농협 제2공장에서 치즈 제조과정을 듣고 있다.

전북대도약 향한 발걸음 '분주'

송하진 도지사, 임실치즈농협·오수의견관광지 방문... 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 청취

송하진 도지사는 28일 시군 방문 대상으로 임실군을 찾았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창립 50주년을 맞는 임실치즈농협과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수의견관광지 현장을 방문해 임실군 나농 및 반려동물산업 관계자 등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지정환 신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난 반세기 동안 전라북도의 낙농산업을 일궈온 임실치즈농협을 방문하여 임실치즈농협 생산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임실치즈산업 발전방안 간담회 후 임실치즈농협 제2공장 시설들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심민 임실군수와 김왕중 임실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임실치즈농협조합장, 한국낙농육우협회임실군지회장, 임실낙농조합 농가대표 등 유관단체 및 지역주민 30여명이 함께했다.

임실치즈농협은 청정 임실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해 낙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전북도의 낙농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임실치즈농협은 전국 1200개 농협에서 13개 농협만이 수상하는 농협 최고의 표창인 총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실군에서는 치즈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유제품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혼연치즈를 국내에서 최

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농협 치즈공장 제2공장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실치즈농협 실동섭 조합장은 '임실치즈농협에서는 혼연치즈 신제품 출시를 위해 수년간 준비해 왔고 시장선점효과를 위해 조속한 시설구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임실치즈는 대한민국 치즈의 원조로서 그 가치가 크고 혼연치즈가 갖는 가치를 공감하므로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식품기업 시설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에 위치한 오수의견관광지를 방문해 오수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테마파크로 변경 조성하여 대한민국 대표 반려동물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임실군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 오수의견제전위원회 임원과 오수개 보존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임실 오수는 주인의 목숨을 살린 오수개의 설화를 바탕으로 34년째 의견문화를 개최하고, 의견공원, 의견관광지 등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견문화제위원회 이강년 위원장은 "이제 반려동물 산업을 통해 오수의 침체된 경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밝히고 오수지역을 반려동물산업

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기후친중인 공공동물장묘시설과 함께 반려동물 테마파크, 특화농공단지 조성으로 임실군의 차별화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산업은 전북도의 관심사업이기도 하므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임실=진홍영 기자

11월 개최 국제탄소페스티벌 도, 특별관·연구조합 부스 운영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국제탄소페스티벌은 제2 아시아(JEC ASIA) 2019 전시회와 공동으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제탄소페스티벌은 전북도정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탄소융복합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고 4차산업의 핵심소재인 탄소융복합소재의 국내외 우수기술 및 제품을 선보이고자, 국제탄소페스티벌 포럼, 전북특별관(홍보관), 연구조합 부스 등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전북특별관과 연구조합 부스에서는 전북의 탄소기업들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이 그간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기술을 축적한 탄소융복합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추석 명절, 가족과 안전하고 훈훈하게 보내세요”

전북도, 시·군·유관기관과 민생안정 종합 대책 마련

전북도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시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8개 분야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가 마련한 8대 민생안정 종합대책에는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서민생활의 안정적 관리 대책,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 대책, 명절 특별교통 안전 대책, 귀성객 맞이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제공, 비상진료 및 보건·위생·환경 대책,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비상근무 대책 등이 있다.

태풍, 호우 등 기상특보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비상상황 발생시 CBS(긴급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한 빠른 상황 전파로 자연재해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다중이용시설, 승강기를 점검하는 한편 화재 등 각종 재난예방활동을 위해 전 소방관서(1만 866명)은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한옥마을, 롯데백화점(전주점·광복점) 등에서 우수상품관 특판행사와 우체국 소품물 등 4개의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개인은 50만원, 단체는 한도를 없앴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행사(38개소/10~20%)와 직거래정터(35개소)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다.

일본 수출규제 시행(7. 4.) 및 백색국가 배제 결정(8. 2.)에 따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소재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과 추석 대비 금리 특례보증지원 19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체불임금 조기청산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추석명절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과 배추, 과일 등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평균 1.4배 공급량을 확대하여 물가안정에 주력한다.

도내 저소득층 세대와 취약계층을 포함 2600세대에 2억6300만원의 생계비 등의 지원과 도청과 출연기관 등이 320여개소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차례상 차리기 지원, 위문방문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생생품 우선구매 판매·홍보에 앞장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도 훈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다한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고속버스 35회 증회 등 대중교통 증편운영과 터미널 및 화장실 환경정비와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확대(7만7500면)을 통해 귀성·귀경 및 성묘객의 편의를 제공한다.

일본여행을 취소한 여행객의 도내 유치를 위해 추석명절 전북투어패스 현장프로모션 및 온라인 이벤트진행과 가을 여행주간·대표축제 연계 집중홍보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귀성객들에 민속놀이 및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도내 문화체육관광시설의 무료할인·시설개방과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20개소)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하고, 도·시군 비상진료대책상황실(15개반)을 운영해 실시간 응급의료정보를 안내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명절 전후 대청소의 날 운영(2회), 쓰레기 수거확대 조정 등 쓰레기 중점수거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정보와 생활민원 등 알 아두면 유익한 긴급 전화번호와 도내 주요 문화체육관광시설 무료할인과 시설개방 현황 등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배너(개설)에 게시하여 도민들과 귀성객이 유익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도민들이 물가·생계부담을 덜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서민생활 안정적 관리 대책 등 8대분야의 추석 명절종합대책을 내실있게 마련했다”면서 “기쁨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친 이번 추석이지만,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운 기업들이지만,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지방세 지원, 일본 여행 대체 여행객 유치 활동과 함께 연휴기간 동안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재해재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대중교통 증편운영으로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행사를 통해 넉넉하고 훈훈한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우수한 국내 천일염으로 해외 수출길 개척

임실 일천 꽃소금, 농식품부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선정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9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임실군에 소재하고 있는 (주)일천의 꽃소금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24일 농식품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추가 공모 이후 전국에서 신청한 4개 업체(충북1, 전북 1, 전남2)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 확인, 최종 사업계획 발표, 전문가 질의응답 등을 거쳐 8월 28일 최종 2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전북에서는 임실 (주)일천이 선정됐다.

일천은 천일염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미네랄 성분 3%를 유지하면서 짜

면서도 끝맛이 단맛이 있는 천일염 특성을 살린 프리미엄 꽃소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현재는 임실 오수농공단지에서 1일 28톤의 꽃소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5억4700만원(보조금 328, 자담 219) 시설 투자가 완료되면, 국내 천일염(연간 25만톤, 전체 생산량의 10%)을 사용한 프리미엄 꽃소금을 생산하여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공급하고, 미국, 호주 등 해외수출 시장 개척도 기대된다.

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많은 식품기업이 입주함에 따른 B2B(기업간 거래)사업을 확대해 대

규모 식품업체와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식염원료를 전처리 또는 반가공 처리하여 공급함으로써 도내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와 연계한 원료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호일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삼라농정의 제값받는 농업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2020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이 9월 중에 공모 예정인 만큼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사업에도 도내 우수한 식품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